

CONV/RGENCE

#3

시간 교차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완벽한 인생



오브라이언 · 스미스 · 자모라 · 브라이트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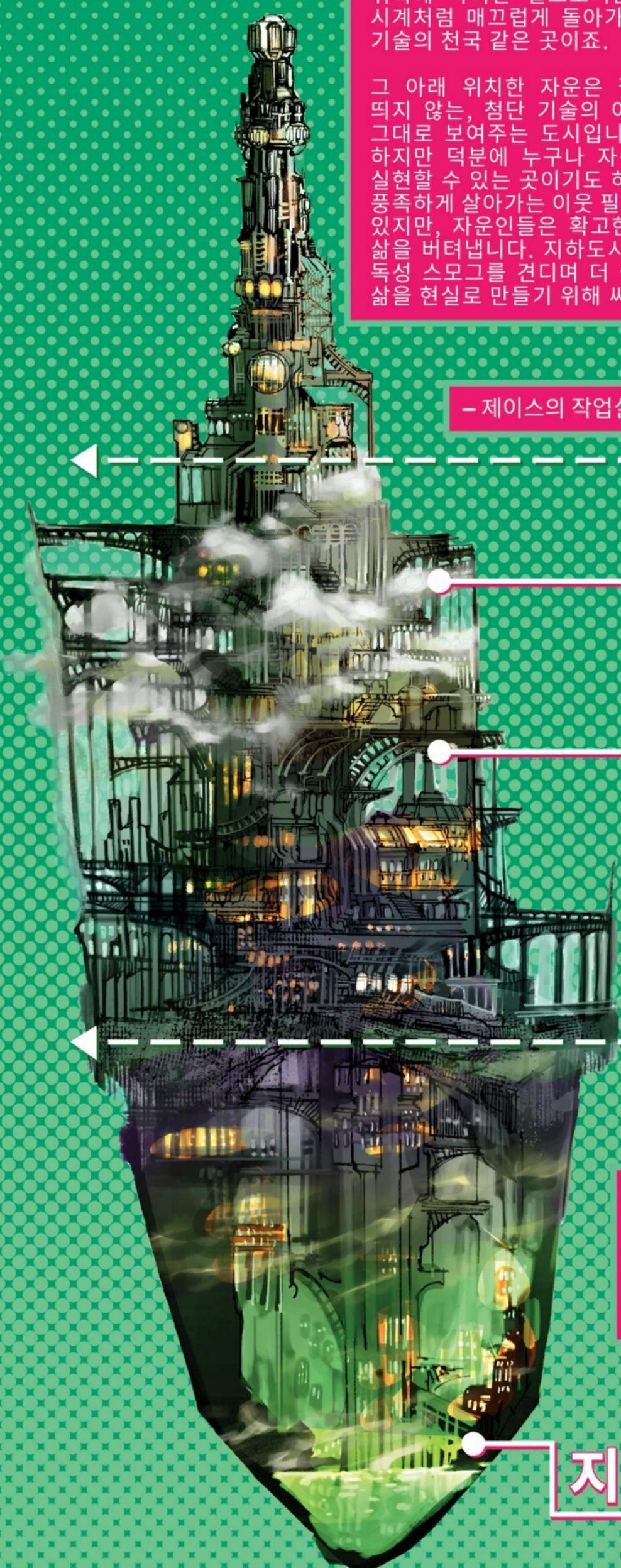
필트오버와 자운

구조 측면도

필트오버와 자운, 이 두 도시는 첨단 기술 발전의 중심지입니다.

위쪽에 자리한 필트오버는 모든 것이 정밀한 시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깔끔하고 부유한 기술의 천국 같은 곳이죠.

그 아래 위치한 자운은 필트오버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첨단 기술의 어둡고 불쾌한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무법 천지이기도 하지만 덕분에 누구나 자신의 꿈을 제재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바로 위쪽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웃 필트오버의 그늘에 놓려 있지만, 자운인들은 확고한 의지와 독창성으로 삶을 버텨냅니다. 지하도시 자운의 짙고 음울한 독성 스모그를 견디며 더 좋은 삶을 찾고, 그런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싸웁니다.



- 제이스의 작업실

필트오버
공요

최상층

중간층

- 승리 축제
- 반 클레그 산업

자운 상층부
음우우 공요

- 에코의 아파트
- 잃어버린 아이들의 은신처
- 빅토르의 오래된 실험실

지하동굴

아트
Eric Canete



에코는 자운의 소년 발명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운**은 첨단 기술에 능숙하면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죠. 에코의 발명품 중 최고는 단연 **Z-드라이브**입니다. 주변의 **시간을 되돌려** 몇 초 전의 일을 되풀이할 수 있죠. 에코는 이 Z-드라이브를 써서 어떤 일이든 자기 마음에 맞게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실수에서 인생이 걸린 문제까지, 그 어떤 것도요.

하지만 시간을 입맛대로 조작하다 보면 자신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결국 에코 주변의 세계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간/교차(**Conv/rgence**)>의 앞선 이야기 격인 이 코믹에서, 에코는 시간을 되돌려 몇 초 후의 미래를 마음대로 바꾸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여행이 주는 새로운 기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개입하지 않고 시간이 그냥 흐르게 둔다는 것은 에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CONV/RGENCE

시간 교차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완벽한 인생

존 오브라이언

글

디트리히 O. 스미스

레이아웃

디트리히 O. 스미스 (1-4편)

크리잼 자모라 (5편)

펜슬 작업

디트리히 O. 스미스 (1편)

윌리엄 윌포드 (2, 4편)

크리잼 자모라 (3, 5편)

잉크 작업

카일 브라이트빌

채색

Studio RAM

레터링 (유럽 언어)

Comiccraft의 타일러 스미스

레터링 (유럽 언어 외)

코리 루이스

표지 아트

사브리나 퍼치

카이트 게리 (1-3편)

에디터

몰리 마한

코믹 내러티브 총괄

메리 검포트

감사한 분들

© 2023 Riot Games, Inc. RIOT FORGE, CONV/RGENCE: A LEAGUE OF LEGENDS STORY and any associated logos are trademarks, service 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Riot Games, Inc. Developed by Double Stallion.



에코의 아파트

이젠 인생을 조작하는 일은 안 하겠어.

그게 뭐요? 그걸 내 눈알에 박아넣을 건 아니겠죠?

아뇨, 오늘은 상담 방문이라서요. 치수만 채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인생은 더더욱.

눈을 고치겠다는 건데, 왜 내 목을 재고 이러는 거요?

아빠한테 말할까... Z 드라이브로 아빠의 마음을 조종했다는 걸...

반 클레그 증강체는 신경계에 직접 플러그를 꽂아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능숙하고 정확하게 개조체를 다루실 수 있죠.

흐억!

...내가 시간여행을 악용했다는 것, 아빠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되감기를 했다는 것을.

별로 좋게 들리지 않는구나. 이게 과연 안전할까?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하시게 하려는 의도였다 해도, 내가 아빠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그게... 저... 그렇게 연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너도 확신은 못 하는구나.

내가 아는 우리 아들은 항상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말해봤자 어찌자고?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긴 해요...

하지만 결정은 아버지가 하시거죠.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택하세요.

이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결과이긴 해.

그래... 어디 해보자.

이제 되감기도, 조종도 없어.

진짜 인생을 사는 거야.

음, 너무 조여요.

죄송합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자, 시술 받으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전 나가볼게요. 내일 아침에 실험실로 바로 갈 테니까, 그때 봐요.

이제부터 모든 걸 딱 한 번만에 해내는 거야.

오늘 그 딱 한 번이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고물촌 경주가 있으니까 말야.

고물촌 지하동굴

뭘
했다고오?!

Z드라이브를
없애버렸다고.

맙소사!
그게- 그게...
대체 왜?!

무조건
되감기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는 거...
그건 진짜 인생이 아냐.
난 나 자신이고
싶어.

그래... 그런데
하필 오늘 네 자신이
되기로 한 건 뭐냐,
에코.

고물촌
경주는 끝내고
하지 그랬냐고.

자운의 갱이란
갱은 다 모였는데. 약해
보이면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잖아. 아주
밟아버릴 걸.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스키즈
말이 맞아.

네가 되감기
중독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우리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다르지.

공학 장치 없이
저기 뛰어드는 건
무모한 짓이야.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지원해
줄게.



나랑 찬시가 밤을
꿀딱 새서 **특급 장치**를
완성했지롱!

요 **벽타기**
전용 부츠는 이제
어디든지 **달라붙을**
수 있어.

내 **로켓**
무릎패드엔
진짜 로켓을
달았어!



다른 것도
많아. 새로 만든
새총 **바지** 한 번
입어볼래?

마음은
고맙지만, 찬시...
난 **딱히 장치**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 나는--

늦어서
미안!



나 **오늘부터**
이 새로운 다리로
살아갈 거야.

레드!
엑시맨더! 너희도
개조체 달았네!

이, 이 경주에서
너희들이 이길 마음이
있다니 기쁘다! 내
머리만으로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말야.



우와. 너네들...
장난 없구나. 그건
뭐야, **엑시맨더?**
발톱이야?



뭐야? 너, 너,
또 **인생**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어쩌고
연설하려고?

난...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이번엔 공학의 힘을 빌리지 않을 거야.

그런 힘이 없어도 된다는 걸 보여줄게.

그러든가. 네가 뒤쳐져도 우리가 만회할 수 있겠지.

정, 정정당한 건 좋지만, 네가 우리 발목을 잡을 거 같은데.

모든 참가자는 출발선에서 주십시오!

규칙은 아시죠? 미로의 반대편에 도착할 것.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맨 먼저 도착한 사람이 고물컵과 더불어, 자운 제일의 돌격자 칭호를 받게 됩니다!

제자리에... 준비...

출발!



경기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힘들겠는데. Z 드라이브를 없앤 게 타격이 커.



사방이 난관 투성이야.

왜 그러니, 꼬맹아?



멋진 동작은 다 잊어버렸나?

거기 두 사람, 혹시 시간여행장치 없어? 이번 경주에서 좀 빌렸으면 하는데.



선두에는
금속 다리를 단
“레드” 군이군요...

->헉헉-<

하지만 자운에서
딱 한 번씩만
시도하기로
했다면...

으.
이봐!

...힘들어도 참아내야 해.



...저 미련하게 생긴
남자애와 건방져
보이는 여자애는 뭘
하려는 거죠...

따라잡아야 해!
로켓 작동 개시!

벽타기
전용 부츠,
가자!



우왁!

이엽!

철썩



으윽.

이익... 안 떨어져!

이럴 줄
알았어. 접착력이
너무 세잖아.

쿠당



크아!

까앙



그리고 우승자는...
“잃어버린 아이들”
소속의...

머리에
기계를 단 저
소년입니다!

너네들 봤어?
벽 따위는 박치기로
해결한다!

굉장했어.

뭐야. 스키즈가...
우승?

스키즈가
이겼네... 난
8등이고.

패배자들, 방금 본
걸 잘 기억해!

“잃어버린 아이들,”
아니 스키즈 님의
새 기계머리에 덤비지
말라고!

“특별하지 않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건
처음이야.

쓸모 있는
존재이고 싶으면
렘을 도와주든가.

저기요?
누구 없어요?

영광된 진화단 공동체

용감한 자들...

단순한 육신과
금속의 결합체
이상의 존재들...

저들은 더 큰 무엇,
단 하나의 거대한
의식에 스스로를
바쳤습니다.

하나된 정신을
위해 개인의 몸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제
재결합으로
저들을
기립시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대들의 헌신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내가
여기서 목격한
장면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건
바보의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어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화공 기류가 있었는데? 네놈들이 저 파이프를 터뜨렸던 거 아냐?



폭발이 있었다. 사심 없는 영웅들 덕분에 화재를 진압했고. 우리는 그들의 잔해와 재결합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 한다.

아, 그러서?



그런데 우리 사심 없는 화학공학 공장 윗분들께선 이 파이프를 지키라고 하셨거든.

그러니 그쪽 거지들은 판 데 가서 어슬렁거려.

우린 부랑자가 아니다. 이 공동체는 우월한 문명을 건설할 청사진 역할을 할 것이다.



우월한 문명? 그게 뭔데?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군. 너희가 장착한 개조체를 보니 완벽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통과한 셈이다. 다음 단계를 보고 싶지 않나?

딱히. 내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거든.



하나된 정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오류를 없애는 길이니.

우리과 함께 하자. 그러면 굶주림도, 질병도 다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프슈웃



우월은 개뿔...

보아하니
감각도 못 느끼는
모양인데.

스으으웃

침범



열등한
괴물들... 완벽한
건 우리다!

형제들, 우리도
당신들처럼 증강체의
몸이다. 완벽이라는
목표를 공유--



좋았어,
모조리 싸
버려!

프슈웃

쭈우웅



우리를
적대하는군...
이전과 똑같아.

우리를
멸시키고 있어.

저들이 틀렸음을
입증하라!

까앙-까앙



너희가
우월함을
보여주어라!

우우웅-
우우웅-

우우웅-
우우웅-



하나된
정신을
보여주어라!



우어어어!

우지직

퍼억

광-광-
광-광-

즈우우웅

끄억...



파츠츠츠



ooo...

부글부글



선-선지자시여...



하나가 되어라,
친구들이여. 비록
그대의 목숨은
잃었더라도...



=>시익시익=>

그대는 진실을
드러내었으니.



짚각

그대는 내게
진화가 실제로
이루어짐을



저들은 내게
그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커억<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개조체를 다는 자는 더 늘어나니까...



뭐야. 불만 있어, 아저씨?

그래. 우리는 완벽으로 다가갈 운명이다. 그러다가 자유 의지라는 역병을 겪는 것이고.



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은 몸은 개조하더라도 정신을 진화시키는 것은 거부하지.



내가 그걸 바꾸어 주겠다.



개인의 의지 따위...

여긴 서비스 타워입니다. 반 클레그 님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십--



...말살해 버려야 한다.

으음...



내가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들...

이제 조금만 개조해 준다면...



동력을 조금 높여서...



...모두에게 전송하는 거다.

아아아아!

...내가 가능하다고 믿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개조체. 자운의
모두를 위한.



얘들아, 어젠
이상한 소릴 해서
미안해.

내가 너희들이
개조체를 단 걸
싫어한 건, 내가 덜
특별해 보이기
때문인 거 같아.



사과하는
의미로
아침거리를
사왔--



너희들 언제부터
그렇게 꼳꼳하게 앉아
있는 거야? 게다가...
눈도 안 깜박이잖아?

오늘부터야.
한밤중에 일어나서
저렇게 앉더니 다시
자러 가지도 않아.

이제 슬슬
무서워지려고
해.

애들아,
저기... 아침은?

야, 레드, 넌
먹을 걸 거절한
적이 없잖아.

난 지금
만족해.
고마워, 에코.





너흰 어때?
너희도 설마--?

난 말짱해.

나도
마찬가지.



좋아. 그럼 이게
무슨 일이든 간에,
일단은--

개조체를
단 저 세 명한테만
일어났어.

맞아. 그러니
저 개조체가 원인일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자.
일단 나는 가봐야
해. 아빠가 오늘
개조체를--



>헉<
아빠!



오늘
아침에 **아빠**가
개조체 수술을
받으시잖아!

다음 편에 계속...